

김유신 전기(傳記)에 나타난 영웅화 방식과 유불(儒佛)사상의 개입

-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중심으로

김 승 호*

<차례>

1. 머리말
2. 영웅상의 시대적 추이와 김유신전
3. 『삼국사기』의 영웅화 방식
4. 『삼국유사』의 영웅화 방식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김유신(金庾信)의 이야기를 통해 중세 영웅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유신을 영웅화하는 전통은 신라시대 김장청(金長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그 이전 건국신화의 담론적 전통을 승계하고는 있으나 국가, 가문의 관계성 위에서 호국영웅을 형상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이르면 김부식(金富軾), 일연(一然)의 사유 방식에 따라 유교, 불교적 영웅으로의 분화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유교적 합리주의를 기저에 둔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은 윤리 도덕적 규범이라 할 오륜(五倫)에 투영시켜 영웅상을 부조한다. 친술자는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부자유친(父子有親), 붕우유신(朋友有信)과 대응된 일화를 선별, 배치함으로써 왕, 국가, 가문 등의 관계망에서 영웅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현생적 일대기에 머물지 않고 주술사(呪術師)-무장(武將)-천신(天神)으로의 전변을 보여줌으로써 삼생에 걸친 윤회의 전체상이 드러난다. 이는 생을 윤회적 구도로 재단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통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우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김유신 전기가 흥미소에 기울어져 사상성이 약화된 여타 전승물과 달리 유교 혹은 불교 사상적 범주 안에서 나름의 영웅상을 모색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주제어 :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유신 전기, 호국영웅, 영웅화 방식, 요원, 삼생관

1. 머리말

고대는 영웅담이 각광을 받던 시기로 생각된다. 출중한 능력과 권위를 갖춘 인물이 역사를 추동한다는 사고는 영웅담의 창작과 전파를 촉매하는 적절한 토양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삼국이 병립하여 각축을 벌이는 환경 또한 자연스럽게 영웅담의 출현을 부추했다고 보겠는데¹⁾ 지배계층이 국가공동체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다지기 위한 목적에서 영웅담을 창작, 권장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전기와 전승 속에 등장하는 삼국시기의 걸출한 용장, 지장, 병사가 한둘이 아니지만 김유신만큼 영웅성을 대응시킬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이는 보기 힘들다. 그만큼 그의 전기, 전승물이 풍성하게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다른 경우를 압도한다.²⁾ 김유신 자료 가운데

-
- 1) 삼국 시대 영웅담의 실상을 재구해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예로 『삼국사기』의 입전(立傳) 분포를 보면 영웅이야기가 삼국시기에 얼마나 폭넓게 창작, 전승되었는지를 미루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다른 신분계층과 달리 을지문덕, 흑지상치, 장보고, 사다함, 온달, 관창, 비녕자, 죽죽, 계백 등 무장, 병사들의 전기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신라를 포함, 삼국에 영웅담이 폭넓게 창작, 전파되었던 사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김유신의 전기(傳記), 전승(傳承) 연구의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윤영옥, 「『삼국사기』 열전 - 김유신고, 『동양문화』 제14·15집, 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1974. 김열규, 「무속적 영웅고 - 김유신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43집, 진단학회, 1977. 김진영, 「문헌소재 김유신 설화고, 『한국소설문학의 연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김유신 논의에서 1차 자료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는 열전의 3분의 1을 오로지 김유신에게 할애할 만큼 상세하게 일대기를 지향하고 있으며 『삼국유사』는 설화를 앞세워 삼생에 걸쳐 김유신의 다양한 전변을 전한다. 여기서는 김유신 전기를 영웅담의 측면에서 살펴보되 『삼국사기』,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 전기를 대상으로 유불적(儒佛的) 영웅화 양상과 사상적 층위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양 사서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유교,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영웅화의 특성, 영웅의 형상 등에 걸친 서사적 변별성이 한층 상세히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2. 영웅상의 시대적 추이와 김유신전

영웅이 사회·문화적 산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애초부터 영웅이 존재했다기보다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표상화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 시기에 왜 그토록 영웅을 동경하고 기렸는지 유추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 강한 대신 아직은 정복의 의지가 미약했던 이 시기의 사람들은 신 혹은 영웅의 힘이야말로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

일조각, 1978.

주명희, 「전의 양식적 특성과 소설로의 수용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90.

김동협, 「흥무왕연의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제25집,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93.

김영화, 「김유신 설화의 변이와 수용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1994.

안영훈, 「김유신 설화의 소설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경희어문학』 제17집,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1997.

조석문, 「김유신 전승의 서사 유형적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선풍, 「설화를 통해본 김유신장군」, 『강원민속학』 제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김영주, 「김유신 이야기의 저능유형에 따른 특징과 그 의미」, 『문학과 언어』 제30집, 문학과언어연구회, 2008.

이정훈,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 설화 고찰」, 『국어문학』 제49집, 국어문화회, 2010.

한 조건이 된다고 여겼다.³⁾ 건국신화 속에 범속한 인물 대신 신 혹은 영웅 위주로 등장하는 점도 이런 맥락과 연결 지어 생각하게 한다.⁴⁾

위대한 존재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하는 영웅담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영웅성이 보다 강한 인물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시대를 내려오면서 신적 속성 보다는 인간적 속성을 구비한 인물로 바뀌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건국신화의 영웅을 삼국시대 서사에서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건국보다 호국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환경에 맞추어 전 시대의 영웅이 퇴장하고 새 얼굴의 영웅이 서사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김유신은 신화시대를 지나 건국영웅이 사라진 시기의 인물이다. 그럼에도 신라 이래 서사들이 한결같이 그를 대표적인 영웅으로 꼽고 있다. 왜 김유신을 영웅의 전형으로 삼고자 했는지는 신라 중기의 정세가 잘 말해준다. 김유신의 초년기 신라의 형세로 말하면 삼국 중 가장 늦게 건국한 데다 문물과 문화의 유입이 늦어있던 약소국이였다. 인제라도 고구려, 백제에 패퇴당할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는 고구려나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힘을 키우는 한편 미비한 국방력을 보완하는 일환으로 당과의 외교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연 7세기에 이르면서 신라는 대외 공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는 한편 당병(唐兵)과 합세하여 백제, 고구려 군을 위협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된다. 신라의 목표는 이제 자기방위를 넘어 삼국통일로 바뀌게 된다. 643년 김춘추가 아들 김

3) 전인초 외, 『중국신화의 이해』, 아카넷, 2002, 222쪽.

4) 나라를 세우는 일은 신적 존재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범인의 능력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주목을 보면, 탄생은 물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이 온통 초인적 궤적으로 편제된다.

인문과 당에 들어가 내놓은 백제 협공제안은 삼국통일을 위한 포석의 하나였다. 이후 나당(羅唐)연합군이 계백장군이 지휘하는 5천여 명의 백제군과 황산벌에서 대결 끝에 백제정벌의 숙원을 이루게 되면서 다음 과제는 고구려 정벌로 바뀐다. 이후 연개소문과의 전투에서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기세에 눌려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연개소문의 사후 그 자식들 간에 분란이 발생해 남생(男生)이 당으로 망명한 가운데 문무왕, 김유신의 신라군이 평양으로 진격하기에 이른다. 이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음해 고구려의 영토는 나당연합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한데 그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라에 원군을 보낸 당이 한반도 전역을 강점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면서 당군이 적군으로 돌변하게 되었으니 신라는 19군데에서 이들과 교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빠져든다. 길게 이어지던 나당전쟁은 676년 기벌포에서 신라군이 설인귀의 수군을 격퇴하면서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백제, 고구려, 당을 차례로 물리치고 신라가 삼국 중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은 것은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걸고 혼연일치의 자세로 신라인들이 뭉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강국과 통일의 기치를 앞세우고 전쟁터에서 혹은 조정에서 무리를 이끌고 왕을 도왔던 김유신의 추동력이 없었다면 삼국통일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까지 등장한 김유신의 전기, 전승물들은 국가적 위난과 난세를 극복하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으로 김유신의 등장을 앞서 꼽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를 불세출의 존재로 대하는 시각은 특히 전승물과 전기들에서 두드러지는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김유신을 영웅 혹은 신격으로 추존하는 일은 어찌면 당연하다 하겠다.

3. 『삼국사기』의 영웅화 방식

3.1. 신화소(神話素)의 수용과 새 영웅상의 모색

『삼국사기』 열전에서 41권에서 43권까지는 온전히 김유신의 일대기에 속한다.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한 인물에게 할애한다는 것은 김유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말해준다.⁵⁾ 하지만 김부식이 전(傳) 후미에 밝혔듯이 김장청의 『행록(行錄)』이 있었기에 상당한 정도의 분량으로 김유신의 생애를 엮어낼 수가 있었다.⁶⁾ 이 때문에 김유신전 논의에서 『행록』과의 관련성을 빠뜨려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김장청의 『행록』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가 김유신의 후손임을 고려할 때, 사실 이상으로 김유신의 행적이 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다시 말해 김유신의 출장 입상적(出將入相的) 면모를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왕과의 관계, 집안사람들의 자취까지 비중 있게 다룬 전기물로 파악된다. 더불어 허구나 과장의 여지가 높았을 것으로 보는데 몰락의 길에 접어든 김유신 가(家)의 신원(伸冤)이야말로 『행록』을 짓게 된 동기였다는 진단⁷⁾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 김장청은 무엇을 입전의 전범으로 삼았을까. 사마천의 『사기』 열전은 과거 전기 작가들에게 지나칠 수 없는 전범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⁸⁾ 김장청의 『행록』도 『사기』와의 관계성 위에서 점검해 볼 수

5) 김장청과 달리 김부식은 일단은 엄정한 전기를 추구했다고 해야 할 터이다. 김유신에 대한 친연성 때문에 김유신전에서 신화소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부식은 『행록』 가운데에서 신뢰할만한 기사 위주로 취사선택하여 입전에 임했다 하겠다.

6) 『三國史記』 卷第四十三 列傳 第三, 金庾信. “故刪落之, 取其可書者, 爲之傳.”

7) 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1988, 99-100쪽.

8) 사기에서 입전 대상들의 초인적 면모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적 증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사서로서 실증성을 고수함으로써 신격에 다가간 인물은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록』은 조상의 위업을 가능한 널리 천양해야 한다는 의식의 산물로 여겨지는 만큼 영웅 신화적 요소를 적극 수용했을 공산이 크다. 『삼국사기』에 이르면 합리적 시각을 중시하는 김부식의 편찬의식에 따라 『행록』의 신화적 요소들이 상당 부분 소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열전 가운데는 신화소가 일부 잔존하기도 하는데 이는 김유신에 대한 김부식의 개인적 친연성과 외경심이 작동한 흔적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상고시기 영웅담을 보면 비범한 생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점을 배려한다. 주몽의 경우, 탄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으며 흔히 말하는 ‘영웅의 일생’⁹⁾의 틀에 대체로 부합된다. 그에 비하면 김유신의 일생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편인데 이상 탄생, 기아 모티브 등 신화소가 상당부분 탈락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웅화의 대상으로 그를 우선적으로 지목하면서 영웅의 일생 단위를 왜 부여하지 않을까. 이는 그의 위업이 약해서가 아닌, 신화시대를 지난 후에 등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듯싶다. 김유신은 건국신화에 보이는 영웅상을 고스란히 덧붙이기에는 지나치게 후대의 인물이다. 당대인들이 그를 영웅의 표본으로 치켜세우더라도 그에 대한 의 영웅화 작업이 당대 영웅담의 관습 밖으로 까지 나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기작가, 전승자들이 김유신을 꼭 예외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청소년기에 이미 신라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고민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입산하여 조력자를 만난다. 그가 중악(重嶽)에서 만난 이는 호국 산신이었다.¹⁰⁾ 하지만 무턱대고 찾아온 유신을 선뜻 받아주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9)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동아문화연구원, 1971, 169쪽.

10) 『三國史記』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 上, “眞平王建福二十八年辛未, 公年十七歲, 見高句麗·百濟·靺鞨侵軼國疆, 慷慨有平寇賊之志, 獨行入中嶽石岨, 齊戒告天盟誓曰, “敵國無道, 爲豺虎, 以擾我封場, 略無寧歲, 催是一介微臣, 不量材力, 志清禍亂, 惟天降監, 假手於我.”居四日, 忽有一老人, 被褐而來曰, “此處多毒蟲·猛獸, 可

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충렬의식이 남다른 것을 확인하자 비로소 신라를 보위할 비결을 그에게 전한다. 서사진행상 ‘유신의 청원—산신의 경청—산신의 인가’ 등으로 진행되는 이 대목은 김유신전중 신화성이 가장 농후한 편이다. 산신이 유신에게 “비법을 함부로 쓰면 양화를 만들 것.”이라 말한 것을 보면 지상의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책을 유신에게 전해주었음이 틀림없다. 그 대목은 단순히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인물로 유신을 접지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신화적으로 그것은 영웅화 단계에서의 입사 의례(入社儀禮)에 속한다.¹¹⁾ 조셉 캠벨에 따르면 이는 영웅이 모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월적 능력을 겸비하는 단계로서 김유신이 산신과의 만남을 통해 유년의 심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국면에 해당한다. 중앙에서 신라 호국신과 조우하고 장차 호국 간성으로서 접지 받은 그 이듬해 김유신은 다시 열박산(咽薄山)을 찾는다. 이때는 전과 달리 검을 지닌 채 “천관신은 빛을 내려 보검에 영험을 내려주소서.”라며 영검(靈劍)으로 바꾸어 주길 천도관에게 간구한다. 3일에 걸쳐 간절한 청을 올리자 허성과 각성 두 별에서 빛이 내려와 검으로 파고드는 이적이 일어났다.¹²⁾ 그것은 천상의 영험한 기운이 스며들어 영검으로 바뀌는 숨 막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태몽을 돌아보면 유신이 명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 서현(舒玄)은 꿈에서 한 동자가 황금으로 만든 갑옷 차림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터였기 때문이다. 태어날

畏之地，貴少年爰來獨處，何也。”荅曰，“長者從何許來，尊名可得聞乎。”老人曰，“吾無所住，行止隨緣，名則難勝也。”公聞之，知非常人，再拜進曰，“僕新羅人也，見國之讎，痛心疾首，故來此，冀有所遇耳。伏乞，長者憫我精誠，受方術。”老人默然無言。公涕淚懇請不倦，至于六七。老人乃言曰，“子幼而有并三國之心，不亦壯乎。”乃以秘法曰，“慎勿妄傳，若用之不義，反受其殃。”言訖而辭行二里許，追而望之，不見，唯山上有光，爛然若五色焉。

11)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89, 99쪽.

12) 『三國史記』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 上. “建福二十九年, 鄰賊轉迫, 公愈激壯心, 獨携寶劍, 入咽薄山深壑之中, 燒香告天祈祝, 若在中嶽誓誓, 仍禱, “天官垂光, 降靈於寶劍.” 三日夜, 虛·角二星, 光芒赫然下垂, 劍若動搖然.

때 이미 무장으로 운명 지어진 유신이 영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본격적으로 영웅적 활약상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16, 17세에 신성지역에서 두 번에 걸친 접신 사건은 의심할 바 없이 유신이 영웅의 길에 들어섰음을 시사해주는 징표로 읽어야 한다. 영웅이란 신비로운 모험에서 거대한 힘을 가지고 돌아와 자신의 무리에게 은혜를 안겨주는 존재¹³⁾라면 이제 유신도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자격을 구비한 셈이다. 두 번에 걸친 신과의 조우는 건국영웅이 거치는 입사의례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 의식(儀式)은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유신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준다.

3.2. 충군보국적(忠君報國的) 자기헌신

영웅화의 한 단계인 입사의례를 거친 영웅에게는 난해한 과제들이 기다리게 마련이다. 유럽 영웅담들에서는 곧 바로 방랑, 혹은 적과 대적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노한 해신 포세이돈이 보낸 바람에 밀려 지중해로 밀려나가거나 악의적 세력과 대적해야 하는 오디세우스의 처지가 그러하다.¹⁴⁾ 하지만 김유신 이야기는 입사의례 이후에는 신화에서 전(傳)의 구도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략과 무술을 앞세워 악마나 괴물과 맞서는 전개 대신에 성년이후 김유신 이야기에서는 신라를 보위, 개조해나가는 역사 이야기로 선회한다. 조숙한 나이에 나라 지킴이를 자처했던 유신에게는 장차 풀어야 일들이 산적해 있는 듯했다.

김유신의 비범함이 타인을 압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해도 이전 영웅 신화의 주인공들이 누렸던 초월성과 신성성을 온전히 김유신에게 부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건국영웅들에게는 천상의 피가 흐르며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 없이 건국과 정도(定都)까지도 스스로 결단하는 권능이 있었

13) 로버트 시걸, 이용주 역, 『신화란 무엇인가』, 아카넷, 2017, 176쪽.

14) 위의 책, 80쪽.

던¹⁵⁾ 반면에 김유신은 왕의 명을 받들어 나라를 방위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정도로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건국영웅이 환경을 압도하는 존재, 호국영웅은 그에 종속된 존재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김유신은 호국영웅의 전형에 속할 듯하다. 김부식이 오륜이란 유교 덕목의 실천자로 김유신을 앞세운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유교의 오륜¹⁶⁾ 가운데도 김부식이 방점을 두어 강조한 것은 군신유의(君臣有義)였다. 『삼국사기』에서 군신유리에 대응되는 기사는 한두 군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정계에 나아가 보필한 왕만 하더라도 선덕여왕, 무열왕, 진성여왕, 문무왕 등 4명에 이른다. 이 왕들을 차례로 섬기면서 그는 신라를 강국으로 바꾸는 데 진력했는데 그의 군신유리적 헌신은 어떤 왕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유신은 공훈이 쌓이고 숭앙하는 시선에 둘러싸여 자만해질 법도 했으나 제왕의 자리는 범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말년까지 왕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태도를 취했다.¹⁷⁾ 이 같은 겸양지덕의 처신이야말로 오히려 왕들로 하여금 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유신이 언제나 관심을 두었던 대상은 왕과 국가이며 그는 마치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그의 행동 범위는 “어질면서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 은혜를 사적으로 베풀게 된다.”는 것이나 “지혜롭고 충성스럽지 못하면 거짓되기 쉬우며 용맹스럽되

15) 조셉 캠벨이 영웅의 과제와 활약상의 정도에 따라 거인영웅과 인간영웅으로 분리한 바가 있거니와(조셉 캠벨, 앞의 책, 328쪽.) 영웅의 임무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건국영웅과 호국영웅으로 구분해 사용하고자 한다. 건국영웅이 나라를 세우는 등 대역사를 스스로 설정한다면 호국영웅은 명에 따라 정해진 목표를 수행하는 존재로서 양자 간의 구분이 가능할 터이다.

16) 『孟子』, 滕文公 上,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17) 이를 두고 김유신은 나라에 멸사봉공하는 것 이외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가야계의 후손인데다 성골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그의 입지는 확고히 다져지게 된다. 나라와 왕에 대한 충직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김유신은 자신의 약점과 장애를 넘어섰다하겠다.

충성스럽지 못하면 어지러워지기 쉽다.”¹⁸⁾는 말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환기시키며 진덕여왕을 끝까지 보필한 것¹⁹⁾을 비롯해 이점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유신과 춘추는 후에 군신지간으로 지위가 현격해지지만 신의가 깊었던 청년기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외교관으로, 한 사람은 지략을 겸비한 장군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국사(國事)에 임한다. 한 예로 막강한 군사력의 백제를 견제하기 어렵게 되자 김춘추가 나서 당에 구원병을 청하는 사이 유신은 적을 이완시킬 요량으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가 하면 부하들이 물새가 군막을 지나는 것을 패배의 징조라 여겨 상실감에 빠졌을 때 간첩이 올 것으로 풀이하고 대비시켜 승리를 거둔다.²⁰⁾ 뿐만 아니라 조비압을 간첩으로 활용하여 백제의 상황을 염탐한 후 공세를 취해 최소의 병력으로 대승을 거둔 일도 있다. 어느 경우나 불세출의 검술과 용역을 갖추고 있는데다 지략과 임기응변에 능한 지장(智將)으로 그려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유신과 춘추의 관계를 증거하는 일화가 적지 않다. 한때 춘추가 백제와의 전투에서 딸과 사위인 품석을 잃은 뒤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 유해마저 적중(敵中)에 놓여있어 춘추의 근심은 한층 깊을 수밖에 없었다. 중과부적의 상태로 백제군과 대량주에서 맞서 싸우게 된 유신은 훈련으로 다져진 신라군들을 이끌고 치고 빠지기를 거듭한 끝에 백제 장군 여덟 명을 생포하고 천여 명의 군사를 죽이는 기대 이상의 전과를 거둔다. 이어 백제 장군 8명과 품석과 그 아내의 유해를 맞바꾸자 제안한

18) 마용(馬融)찬, 정현(鄭玄)주, 『忠經』, 辨忠篇 “仁而不忠, 則私其恩, 知而不忠, 則文其詐, 勇而不忠, 則而其亂.”

19) 『三國史記』 제42권, 列傳 제2.

20) 『三國史記』 제42권, 列傳 제2. “於是, 屯於道薩城下, 歇馬餉士, 以圖再舉. 時有水鳥, 東飛過庾信之幕, 將士見之, 以爲不祥. 庾信曰, “此不足怪也.” 謂衆曰, “今日必有百濟人來謀, 汝等佯不知, 勿敢誰何.” 又使徇於軍中曰, “堅壁不動, 待明日援軍至, 然後決戰.”

끝에 이를 성사시킨다. 이에 신라군의 사기가 높아지면서 악성 등 12성을 빼앗고 2만 명의 적을 죽이는 큰 전공을 얻게 된다. 사위와 딸의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면서 유신에 대한 춘추의 믿음이 깊어졌음이 틀림없겠는데 이 때에도 유신은 “이것이 모두 하늘이 주신 행복으로 된 것이지 내가 무슨 힘쓴 것이 있겠습니까.”²¹⁾라며 겸양의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유신과 춘추의 이 같은 관계는 봉우유신(朋友有信)의 덕목을 나무랄 데 없이 구현한 예로 부족함이 없다.

김춘추와 유신은 얼마든지 정적 관계로 돌변할 수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이 둘은 젊은 시절 피로 맹약했던 대로 신의를 지키며 동지관계를 유지하였다. 유신은 춘추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춘추를 도왔을 뿐더러 특히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동지로 대하던 춘추가 왕위에 오르자 신하의 예로 보필에 전심한 것을 두고는 봉우유신에서 군신유의로 규범이 옮겨갔다 말해도 좋을 터인데 김유신전은 전체적으로 윤리규범 안에서 김유신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제가(齊家)와 가문(家門)의 명예 현시

김유신전의 후반부는 가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보통 전(傳)이 서두부터 종결까지 주인공의 생애로 채워지는 것과 비교되는 구성방식으로 김유신 이외 가문 내 여타 인물까지 부조(浮彫)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실 김유신의 생전에는 왕들조차 앞장서 김유신가의 위업을 칭송하곤 했다.²²⁾ 그러나 유신의 사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광이 점차 퇴색

21) 『三國史記』 열전 제41권, 열전 제1. “此皆天幸所致也 吾何力焉”

22) 문무왕의 다음 말은 김유신 가문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 “이제 유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사직을 맡을 만한 신하가 되어 나아가서는 장군이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 공적이 뛰어났었소. 만약 유신 가문에 힘입지 않았다면 나라의 흥망을 알 수 없었을 것이오.” (『三國史記』 卷第四十二 列傳 第二)

되기에 이른다. 김장청의 활동기에는 이 가문은 몰락의 지경에 처해 있었다. 조상인 김용이 혜공왕 6년(770)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복주되면서 유신가에 가해지는 핍박의 정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김장청이 신원적 글쓰기에 나섰으며 그 결과물이 『행록』이라는 것이다.²³⁾

『행록』의 중심내용은 김유신에 쏠려 있어야 하지만 신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문 구성원들의 면면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지소부인, 김암, 원술 등을 더불어 거론함으로써 이 가문의 위국충절(爲國忠節)의 전통이 선명해지게 되었다. 후손들의 자취 역시 선조와 다름없이 나라에 대한 희생을 앞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결과적으로 제가(齊家)까지 소홀하지 않았던 유신의 또 다른 면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었다.

김유신전은 부부유별(夫婦有別)과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도덕률을 두고서 가족 구성원들 개개의 관계를 예시하기보다 국가와의 관계성을 지적하는 데 더욱 집중한다.²⁴⁾ 과거 남성에게는 동정서벌하는 장부(丈夫)의 상을, 여성에게는 가정 내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상을 주입시켰다. 김유신 부부는 그런 전형으로 채택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지소부인은 부부유별의 덕목을 가정 내에서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에 해당된다. 지아비를 지극히 섬기고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자식 교육에 힘쓰는 지소부인의 덕행은 타인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김유신이 세상을 뜬 뒤 문무왕이 “지금 서울과 지방이 편안하여 임금과 신하가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 없이 지냄은 태대각간의 덕택이니 오직 부인이 그 집안을 잘

23) 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1988, 99-100쪽.

24) 유교에서는 ‘나’의 출발지점을 ‘가(家)’로 설정한 다음 가족 구성원과 나와의 이상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처방으로서 부부유별, 부자유친 등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규범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김유신전은 가문 구성원들 간의 사적인 예화에 그치지 않는다. 즉 김유신전의 후반부는 가문 사람들 간의 사적인 범주를 벗어나 국가와 가문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다스리고 경계하여 도와 뒤에서 도운 공이 뛰어났었소.”라는 말로 지소부인을 칭양했다. 또한 해마다 벼 천 섬을 하사함으로써 그 덕행을 가능한 널리 전하려 했다. 그녀는 부덕(婦德)의 실천자를 넘어서 남성 못지않게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한 여인으로 현창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보다 국가를 우선시 하는 이들 부부에게도 결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문무왕시 당나라의 장창부대와 전투를 벌이는 중에 신라 장군 호천(曉川), 의문(義文) 등이 전사하자 유신의 아들 원술(元述)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들과 맞서고자 한다. 하지만 담릉(淡陵)의 거듭된 만류로 퇴각하고 만다. 이후 노병 아진함(阿珍歙) 역시 원술의 참전을 가로 막은 채 이들과 함께 당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게 된다.²⁵⁾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신은 왕에게 “원술은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의 훈계도 저버렸으니 목을 베어야 한다.”고 상소하기에 이른다. 국가 제일주의자라 할 유신은 혈육이지만 퇴각해 목숨을 부지한 것으로 여겨지는 원술을 목과하는 것이야말로 부자유친의 도리에 반한다고 생각했다.²⁶⁾ 부(父)에게 끝내 외면당하던 원술은 유신의 사후에야 지소부인을 뵈기로 하는데 부인 역시 냉정한 태도로 대면하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부에게 자식 노릇을 못한 원술을 자신도 자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참작의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²⁷⁾ 지소부인은 원술이 가정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냉혹하게 모자간의 인

25) 『三國史記』, 卷第四十三, 列傳 第三.

26) 당나라 군사에 대적하다가 장창부대가 패퇴한 후 비장으로 있던 원술이 치욕을 씻기 위해 일전을 벌이고자 했으나 담릉이 승산이 없다며 출전을 막고 나섰다. 원술이 물러난 뒤 노병인 아진함과 그 아들이 중과부적의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 죽게 되자 원술의 비겁함을 보다 못한 유신이 왕에게 아들의 목을 베어달라고 참소하게 된다.(『三國史記』 卷第四十三, 列傳 第三)

27) 원술은 일신을 도모하려 애쓴 것도 아니고 공포심 때문에 전장을 벗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도 적과 싸우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나 담릉과 아진함이 원술을 밀치고 싸우기를 고집하는 바람에 의도와 달리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三國史記』 卷第四十三, 列傳 第三)

연을 끊고 만다. 그녀는 남편 못지않게 사사로운 정을 뿌리치고 위국충절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셈이다. 지소부인은 부부유별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남긴 부자유친의 유훈(遺訓)을 실천으로 옮긴 여인이었다.

김유신전에는 간략하지만 적손인 윤중(允中), 윤문(允文)의 활약상도 삽입되어 있다. 이들이 조부에 이어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발해를 격퇴한 점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김암(金巖)의 자취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한 데다 방술에 뛰어났던 김암은 패강지역으로 출해가 번지자 산꼭대기에 올라가 향불을 피우고 천상에 기도하여 병충을 박멸시키는 이적을 행한다. 이는 위기국면마다 천상에 기도하여 감응력을 이끌어내던 유신의 신통력과 방불한 데가 있다. 이렇듯 후손들도 충정어린 자취를 남겼으나 유신 가문은 점차 망각되고 나아가 홀대까지 당하게 된 것이 당시의 상황이다. 조상령(祖上靈)으로서 유신은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곧 779년 김유신의 무덤에서 일어난 회오리바람이 미추왕의 능 안으로 옮겨간 뒤 갑자기 그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인데 김유신의 영(靈)이 미추왕에게 가문과 후손을 홀대하는 현왕의 처사에 울분을 터뜨린다.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화로 김장청이 조상령인 김유신의 입을 빌려 가문에 대한 보훈을 청원한 것이라 하겠다.

김유신전에서 여타 가족 구성원들은 결국 김유신을 돋보이게 하는 소품적 기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전(傳)의 후반부는 지소부인, 원술, 김암, 윤중, 윤문 등의 행적과 위업을 개별단위로 상세히 나열함으로써 유신의 유지가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이어졌음을 확인시킬 수 있었다.

4. 『삼국유사』의 영웅화 방식

4.1. 삼생관(三生觀)의 적용과 업(業)의 제시

『삼국유사』는 역사를 지향하면서도 서사적 가능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사서(史書)라면 사실성의 부족을 탓하며 소거시켰을 내용들이 『삼국유사』에 오면 도리어 비중 있는 서사단위로 바뀐다. 김유신의 일생만 하더라도 『삼국유사』에서는 문헌적 사료보다는 구비전승적 자료가 한층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삼국사기』를 참조 내지 이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나 『삼국유사』는 이를 좇지 않았다. 애초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역사를 갈무리 한다는 취지를 고수한 탓도 있겠으나 일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유교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허탄하기 이를 데 없는 삽화들을 집중해 끌어들이므로써 유가적 찬(撰)의 식에 길들여져 있는 이들에게 김유신 조는 적지않은 당혹감을 불러온다.

『삼국사기』의 김유신이 유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둔 영웅이라면 『삼국유사』의 ‘김유신’은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현된 영웅에 해당될 터인데 민중들이 유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불교적 세계관을 개입시킬 때 영웅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비추어 준다. ‘김유신’이 『삼국사기』 열전에서와 같이 김유신의 일대기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나 현생 대신 전생을 대입시킴으로써 전기의 일반적 통념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일단 내용을 따라가 보자. 서현(舒玄)과 만명(萬明) 사이에서 태어난 유신은 어릴 때부터 동량지재로 신라인의 기대를 받으며 성장하다가 화랑의 무리에 들어간다. 화랑도 중에 백석(白石)이 유난히 그에게 접근해 고구려를 정탐하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게 된다. 평소 고구려의 정세가 궁금했던 유신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여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세 여인이 유신에게 백석이 실은 고구려의 첩자이며 유신을 고구려로 유인해

죽이려는 음모이니 속지 말라 일러준다. 서둘러 핑계를 대고 신라로 복귀한 유신이 치죄 끝에 받아낸 내막은 다음과 같았다. 원래 유신은 고구려에서 점쟁이로 이름을 날렸던 추남(秋南)이었다. 그런데 고구려왕이 추남에게 국경의 역류현상에 대해 물었을 때 왕비의 음행 때문에 그렇다는 풀이를 내놓자 앙심을 품은 왕비가 점쟁이를 죽일 계책을 세운 뒤 함안에 든 쥐의 수를 맞히지 못했다는 죄로 몰아서 그를 죽이게 된다. 원한이 사무쳤던 추남은 죽기 전 미래세에 신라의 장수로 태어나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유언을 남긴다. 이후 추남의 저주대로 사태가 진행되자 당황한 고구려에서 백석을 신라로 밀입시켜 유신을 유인한 뒤 죽이려던 참이었다.²⁸⁾

내용으로 보아 구비 전승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례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인과응보, 삼생관을 축으로 전개한 것으로 보면 불교적 세계관을 주입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이 드러난다. 자타카에서 보듯 불교서사는 삼생의 구도에 친숙하다. 열반에 이르지 못한 존재라면 전생, 현생, 후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김유신’도 삼세양중(三世兩重) 사고²⁹⁾를 기저에 깔고 있다.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데 있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인과법칙의 주입이다. 사실 『삼국유사』의 김유신 조는 유신의 전기이자 고구려와 신라 두 국가의 흥망성쇠의 이면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김유신은 고구려와 신라의 국운이 갈리는 지점에서 서 있다. 추남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왕비라 할 수 있으니 그녀가 악업을 받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쫓값대로 축생도 혹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미물로 태어나는 등의 악업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경우는 고구려 전체가 응보를 당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28)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第一, 金庾信.

29) 과거세로부터 현재세, 다시 미래세에 이르는 삼세에 걸친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대소승(大小乘) 불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념해온 사고이다. (미즈노 고겐, 김현 역, 『원시불교』, 지학사, 1988, 122쪽.)

무명(無明)과 행(行) 두 가지에서 촉발된 추남의 죽음은 당장 단시간 내 응보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다생다세(多生多世)의 흐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³⁰⁾ 왕비의 무명과 행으로 인해 추남이 죽었으나 곧이어 그가 만명(萬明)의 품으로 들어가는 기이상(奇異相)이 고구려 왕의 꿈으로 시현된 것이다. 이 꿈은 추남에서 유신으로 이어지는 전후생의 전변을 내세워 업 사상과 삼생관을 밀도 있게 구현시키고 있다.

현세도 그렇지만 과거세와 미래세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생이 어디서 흘러왔으며 어떻게 흘러갈지를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불교적 인과응보의 원리는 미래세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추남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인(因)에 속하고 이에 대한 과(果)로서 추남이 김유신으로 환생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일은 과에 속한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부흥이란 인과론적 진행이 김유신의 영웅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낳는다. 삼국 간 흥망을 다루는 거대 담론으로 본다면 김유신의 존재적 의미는 부차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거기다 김유신조차 삼생유전의 흐름에 간혀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만큼 영웅성의 약화는 피할 수가 없게 된다.³¹⁾ 그러나 그 때문에 유신의 영웅성이 훼손되었다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추남이 죽은 뒤 신라의 유신으로 환생한 뒤 스스로의 힘으로 호국의 선봉에 섰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무장(武將)으로, 재상(宰相)으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던 신라와 백성에 대한 유신의 애정과 희생은 변함이 없었다. 그의 호국, 애민정신은 현생을 넘어 내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30) 위의 책, 56쪽.

31) 범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윤회이므로 불교에서는 현생만을 주목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고정된 것이 없다는 제법무아적 시각이 김유신의 일생담에도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석가는 무상도(無上道)를 추구한 끝에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불교적 영웅임을 현시하였다.³²⁾ 그에 비할 때 김유신을 불교적 영웅으로 명명하는 일은 지나친 일일 수 있다.³³⁾ 윤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된 일은 큰 흠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열반 적멸의 세계를 추구하는 대신 신라 보위만을 전부라 여겼던 유신이 지상의 삶을 마감한 뒤에도 여전히 나라 수호의 의지를 다지고 있음은 분명 주목할 점이다.³⁴⁾ 『삼국유사』에 형상화된 김유신은 주술사, 무장을 거쳐 신라와 영원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국영웅으로 부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³⁵⁾

4.2. 호국 신격으로의 윤희

『삼국유사』에서 김유신의 미래세를 전하는 것으로는 미추왕죽엽 조와 만파식적 조를 들 수 있다. 우선 미추왕죽엽 조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어느 날 김유신의 무덤에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난 후 미추왕릉으로 거세게 옮겨가는 광경이 펼쳐진다. 곧이어 분노한 김유신이 평생토록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고 삼국통일을 이루었음에도 경술년(770)에 자신의 후손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다면서 더 이상 신라를 진호할 뜻이 없음을 미추왕에게 털어놓게 된다. 김유신의 분노는 결국 미

32) 조셉 캠벨, 앞의 책, 39쪽.

33) 김승호, 「불교적 영웅론」, 『한국문학연구』 제12집, 한국문학연구소, 1989, 329-354쪽.

34) 『삼국유사』에서 김유신의 생이 과거세, 현재, 미래세로 구분지어진 것으로 볼 때 불교적 인과 윤희 사과의 서사적 대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해탈이나 열반에 든 것이 아니기에 김유신을 불교적 영웅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불교적 시간관을 적용시킨 사례임은 분명하다. 김유신의 현생이 생각 이상으로 미미하게 처리된 점은 눈길을 끌기에 족하다. 연대기적으로 현생을 촘촘하게 재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시각을 확장해 삼생을 아우름으로써 인과 윤희의 의미가 한층 선명히 다가온다.

35) 김유신의 생 역시 윤희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영웅성을 부정하는 건 옳지 않다. 그는 환생을 거듭하지만 자유의지에 따라 신라 수호의 중심에 서게 되며 결국 신격의 위치로까지 비상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숙명에 갇힌 채 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열어나가려 한다.

추왕이 자신과 유신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라 백성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며 호국령으로서의 사명감을 상기시킴으로써 겨우 가라앉게 된다.³⁶⁾ 어쨌든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김유신과 미추왕이 사후에 호국 영령으로 동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추왕과 유신은 설사 사후의 세계일지라도 조우의 가능성을 상정해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동시기가 다르다. 그럼에도 이들이 동거관계로 그려진 까닭은 동일하게 김씨인 데다 신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³⁷⁾

김유신의 미래세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예가 만파식적이다. 핵심부분만 소개하면 이렇다. 신문왕이 선왕을 위해 감은사를 세운 그 이듬해 작은 산이 물결을 따라 감은사 쪽으로 다가오는 일이 벌어진다. 일관이 이르기를 수호용이 된 문무왕과 삼십삼천³⁸⁾의 한 아들이 되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대신이 된 김유신이 신라 성을 지킬 수 있는 보물을 전해주려는 기미라 했다. 그에 따라 신문왕이 감은사에 이레를 머물며 기다린 끝에 용으로부터 옥대를 받게 된다.³⁹⁾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는 기이한 일을 두고 신문왕이 의문을 품자 대나무란 합쳐져야 소리가 나는 것이므로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게 될 징조라는 일관의 풀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조는 신라의 화평함을 위해 신문왕과 김유신이 용을 시켜 신문왕에게 피리를 건네준 기연(奇緣)을 풀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눈길을 사로잡

36) 『三國遺事』卷 第一, 紀異第一, 未鄒王 竹葉軍.

37) 미추왕과 더불어 무덤에서 조우하는 일화는 『삼국사기』의 열전 말미에도 삽입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김장청의 『행록』에서 따왔을 여지가 높다. 김장청은 김씨 성을 가진 유신과 미추왕을 동시에 등장시키는 것이 가문의 공업(功業)을 알리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터이다.

38) 삼십삼천은 육육계의 하나로 수미산의 정상에 위치한 하늘을 가리킨다. 그 중앙에는 제석천이 있으며 제석천을 포함, 사방에는 8인이 있다. 만파식적에서는 김유신이 천신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으나 어쨌든 미래세의 그는 천신으로 좌정된다. (경인문화사 편집부, 『불교용어사전』, 경인문화사, 778-779쪽.)

39) 『三國遺事』卷 第二, 紀異第二, 萬波息笛.

는 것은 김유신이 사후에 삼십삼천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문무왕이 감은사를 지어 왜병을 진압하려다 이루지 못한 채 죽어 동해의 용이 되었다는 점이다. 삼십삼천이란 불교에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천신을 가리키므로 사후 김유신은 천상의 신이 되었음이 밝혀진다. 천신은 하늘에서 부처님을 보좌하고 천인을 교화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으로 내려와 자비와 시혜를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존재이다.

만파식적 조에서 김유신은 분명 불교적 영웅으로 탈바꿈해 있다. 생전에 이미 그는 호국의 상으로 새겨졌던 터이므로 신라를 외호(外護)하는 영원불사의 존재로 설정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흥법과 삼국 통일에 대한 신라인의 희원을 달성시키고 미래세까지 신라를 진호해줄 수 있는 인물로는 그만한 이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그가 천신으로 좌정된 것이다. 김유신을 삼십삼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은 만파식적이 불교적 천관(天觀)을 기저에 두었음을 말해준다. 천신은 하늘을 관장하는 존재이므로 그곳의 권속들을 살피고 부처를 보위하는 것이 주 임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천상에 머물면서도 때로는 지상에 강림하여 사부대중의 고초와 번민을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선다.⁴⁰⁾ 따라서 사후 김유신을 삼십삼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라인들은 구국의 선봉에 섰던 생전의 유신을 잊지 못한 나머지 그가 죽자 불교의 천신으로 설정해 위안을 받고자 했는데 이는 김유신이야말로 국태민안으로 인도하고 신라를 영속하게 하는 최적의 인물이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40) 김유신의 사후를 제석천에 비유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제석천은 환인으로 불리기도 하며 천상에서는 부처를 호위하는 것이 주 임무임에도 천하 사부대중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할 때 적극 고조선의 건국을 후원했으며 흥륜사가 화재로 잿더미가 되자 우왕좌왕하는 사중들을 대신해 절을 세워주고 천상으로 복귀한 것도 제석천이다. (『三國遺事』 卷 第三, 第四 塔像)

5. 맺음말

서사 문학사적으로 건국을 추동했던 인물들을 영웅시하던 분위기에서 점차 호국에 앞장 선 이들을 영웅으로 대하는 쪽으로 환경이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삼국 중 뒤늦게 등장한 신라가 초반의 열세를 만회하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는데 있어 누구보다 칭송의 대상으로 부상한 인물이 김유신이었다. 그에 대해 신라인들이 얼마나 큰 관심과 애정을 보였는지는 그에 부연된 술한 전기, 전승들이 말해준다. 김유신 전승들은 주몽담과 같이 영웅의 일생 구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신라인들이 관념한 영웅상이 다채롭게 투사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범위를 좁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구현된 김유신의 영웅적 형상을 유교, 불교 사상과 연관 지어 검토해 보았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10권의 열전 가운데 3권 분량을 김유신전에 할애하여 어떤 인물보다 그 존재적 의미를 부각시키려 했다. 그는 선행했던 김장청의 『행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전(傳)으로 편성하였는데 『행록』을 일차 사료로 삼되, 윤리규범인 오류에 유념하여 김유신의 영웅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물론 김유신전에는 접신을 통한 입사의례를 적시하거나 수시로 천상과 소통하는 주술가의 능력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영웅성은 유교적 도덕규범을 포용하는 선에서 구현된다. 이에 반해 『삼국유사』는 현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전생부터 들여다보길 주저하지 않는다. 현생은 과거세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사고에서 출발하여 순환하는 생을 계기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감지되거나와 삼생의 추적을 통해 교화와 성찰의 여지를 높이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전생 못지않게 여러 군데에서 불교의 천신이 되어 여전히 신라를 수호하고 있는 미래세의 김유신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로써 전생, 현생, 후생 안에서 단절 없이 신라 호국에 앞장서는 호국영웅의 상(像)이 마련된다. 그것은 진충보국하

던 김유신의 생전 모습을 사후까지 투사시켜 미래세까지 그의 보호 속에 안주하기를 소망하는 신라인들의 의식세계를 반영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유가, 불가를 떠나 김유신에 대한 영웅화의 열기가 대단했음을 증거해 준다. 그럼에도 두 문헌은 유불사상을 개별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영웅화 방식에서 상당한 편차가 생기게 되었다. 유가를 대변하는 『삼국사기』가 김유신의 지상적 삶에 시각을 고정한 채 유교의 실천 덕목과 출장입상적인 영웅성을 찾았다면 불가를 대변하는 『삼국유사』에 오면 삼생을 일생단위로 전제한 뒤 인과응보, 윤회사상과 함께 김유신의 신격을 강조한 것으로 밝혀진다.

○ 참고문헌

- 경인문화사 편집부, 『불교용어사전』, 경인문화사.
- 김동협, 「홍무왕연의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제25집,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93, 153-176쪽.
- 김부식, 『三國史記』
- 김선풍, 「설화를 통해본 김유신장군」, 『강원민속학』 제20집, 강원도민속학회, 2006, 9-24쪽.
- 김승호, 「불교적 영웅고」, 『한국문학연구』 제12집, 한국문학연구소, 1989, 329-354쪽.
- 김열규, 「무속적 영웅고 - 김유신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43집, 진단학회, 1977.
- 김영주, 「김유신 이야기의 전승유형에 따른 특징과 그 의미」, 『문학과 언어』 제30집, 문학과언어연구회, 2008, 51-76쪽.
- 김영화, 「김유신 설화의 변이와 수용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1994.
- 김진영, 「문헌소재 김유신설화고」, 『한국소설문학의 연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편, 일조각, 1978.
- 로버트 시걸, 이용주 역, 『신화란 무엇인가』, 아카넷, 2017.
- 맹자, 『맹자(孟子)』, 滕文公 上.

- 미즈노 고젠, 김현 역, 『원시불교』, 지학사, 1988, 122쪽.
- 안영훈, 김유신 설화의 소설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경희어문학』 제17집,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1997, 245-275쪽.
- 윤영옥, 「『삼국사기』 열전 - 김유신고」, 『동양문화』 제14·15집, 영남대 동양문화 연구소, 1974.
- 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1988.
- 이정훈,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 설화 고찰」, 『국어문학』 제49집, 국어문학회, 2010, 253-273쪽.
- 일연, 『三國遺事』.
- 마융(馬融)찬, 정현(鄭玄)주, 『충경(忠經)』, 辨忠篇.
- 전인초 외, 『중국신화의 이해』, 아카넷, 2002.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원, 1971, 165-214쪽.
- 조석문, 「김유신 전승의 서사 유형적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주명희, 「전의 양식적 특성과 소설로의 수용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90.

□ 이 논문은 2017년 11월 16일 접수되고
2017년 12월 15일 심사완료되어
2017년 12월 19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Making a Hero of Kim Yu-shin and Intervention
in Confucianism and Buddhist Thoughts**
- Based on the Samguk Yugi and the Samguk Yusa

Kim Seung-ho

The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eroes through Kim Yu-shin's story. In ancient times, stories of warriors who fought in wars became popular. They thought that is worthiness, and therefore many heroic stories appeared. In the case of Korea, the story was regarded as strong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story of the generals who played the battle between Goguryeo, Baekje and Silla continued to spread through literature, or folklore.

The story tradition of Kim Yoo-shin was first traced to Kim Jang-cheong, the former kingdom of the Silla Dynasty. But it is believed that the traditions of the kingdom, the family, and the ideas of the origin of the dynasty were introduced. In particular, the Samguk Yusa and Samguk Yusa are believed to belong to the story of a hero in his memoir, according to Kim Bu-shik and Yeon Yeon. In other words, in the fraud of Confucian rationalism, Kim Yu-shin tries to demonstrate the five moral principles(五倫) of the ethics moral code.

The author of the Samguk Yusa tells the tale of a hero about a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vassal, a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a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 and a s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a friend and a friend. On the other hand, the Samguk Yusa goes beyond the current life and reveals its life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Even though the hero is destined not to be a mere cause of death, he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fate of the gods, but he will unlock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hero of a human being. The story of Kim Yu-shin and the Samguk Yusa in Samguk Yusa are different from other examples.

Key Words : the Samguk Sagi, the Samguk Yusa, the biography of Kim Yu-shin,
A hero who protects a nation, The art of making a hero,
the Five Morals, Three roundful cycle of life